

TARTAN과 스코틀랜드 복식에 관한 연구

서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조교수 정혜정
 세종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임영자

目 次

I. 서론	2. KILT
II. Tartan의 특징	IV. 현대 패션에 응용된 스코틀랜드 복식
1. Tartan의 상정과 기원	V. 결 론
2. Tartan의 형태	참고문헌
III. 스코틀랜드 복식의 특징	ABSTRACT
1. PLAID	

I. 서론

우주 왕복선 아폴로(Apollo)호가 달에 착륙 했을 때 선원인 앨런 빈(Allan Bean)은 경건한 마음으로 맥빈 타탄(Macbean Tartan) 한 조각을 달 표면에 올려 놓았다. 타탄(Tartan)은 스코틀랜드(Scotland)의 혈통과 영토 그리고 자존심의 상징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했으므로 많은 이들이 앨런 빈의 행동을 이해했고 칭찬했다. 이렇듯 타탄은 스코틀랜드인에게 강한 역사적 그리고 국민적 의미를 주었고, 따라서 패션에서 타탄 체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요즘은 킬트(Kilt)에서 뿐만 아니라 디자이너 브랜드 옷에서도 타탄 체크를 찾을 수 있다.¹⁾

타탄 체크의 무늬구성은 세로선과 가로선이 직각으로 교차하는 전형적인 격자모양으로 형성 되

어 있으며 다른 체크 패턴에 비해 색채가 다양하고 풍부하며 염색이 가능한 모든 색채가 구사되어 있는 장관은 다른 무늬의 추종을 불허 할 정도이다.²⁾ 또한 타탄 체크는 색채 구성과 디자인이 독특하고 개성과 극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직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직물 생산은 18세기 산업 혁명 이후 급속히 발달한 방직기술로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이 시작 되었다. 그 후 현재까지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직물은 기계에 의한 대량생산에 의존해 왔으나 지나치게 규격화된 기계 생산품에 싫증을 느낀 현대에 와서는 독특한 개성과 예술성을 지닌 실용적인 직물인 수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통적인 체크 패턴인 타탄과 스코틀랜드의 복식을 알아보고 둘째,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스코틀랜드 복식이 어

1) Hugh Cheape, TARTAN, Trustees of The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1995, p.3

2) 김영현, "TARTAN CHECK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IV

떻게 응용되고 있는지 그 조형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및 논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각종 패션 잡지, 논문, 문헌 등의 사진 자료를 활용 하였다.

II. 타탄체크의 특징

체크 무늬는 수직,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바둑판 무늬로 일반적으로 선염(先染)한 날실과 씨실로 직조하여 만들어 내지만, 프린트 즉, 날염으로 나타낸 것도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큰 바둑판 무늬를 플라이드(Plaid), 작은 바둑판 무늬를 체크(Check)라고 한다.³⁾

플라이드는 원래 스코틀랜드(Scotland) 고지방 사람들의 모직으로 만든 어깨걸이⁴⁾를 말하며 이것은 스코틀랜드의 민족 의상에 속하며 굵기가 다양한 선 즉, 선과 선이 교차됨으로써 형성된다. 스코틀랜드 체크인 타탄(Tartan)은 고대 스코틀랜드 고지의 씨족들에게 유래되어 계승·발전된 것으로 이것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와 오늘날까지 널리 애용되고 있다.⁵⁾

본 장에서는 이 고지의 씨족들이 사용하였던 체크 문양인 타탄의 상징과 기원 그리고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1. 타탄의 상징과 기원

의복에 사용되고 있는 체크 무늬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많이 애용되고 있는 타탄(Tartan)은 체크 무늬의 모직물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체크 무늬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⁶⁾ 또한 타탄

은 원래 스코틀랜드 고원지방의 주민이 사용하였던 체크 무늬의 방모직물로 남자는 이것을 킬트(kilt)나 어깨걸이(plaid)로 여자는 스커트나 드레스로 만들어 착용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여러 종족이 각각의 특유한 타탄을 정하여 이것으로 종족 계급을 나타내는 문장(紋章)이나 의식용의 장식 품으로 삼았다.

그 종류는 수백종에 이르는데 하나같이 수직, 수평선의 무늬분할이 같고 제직시 교차하는 줄 모양의 많은 격자무늬가 나타나며 색채가 화려한 체크 무늬의 천이다.⁷⁾

타탄이 처음부터 스코틀랜드인의 동일성(Identity)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다. 하일랜드에서는 결속력을 위해서 식물이나 나무를 이용하기는 했다. 하지만 타탄이 작가들과 예술가, 생산자와 재단사들의 노력에 힘입어 스코틀랜드의 상징으로 자리잡았다. 그래서 여러 타탄 무늬는 커다란 의의와 역사성을 갖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생성 배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씨족과 가문이 받아들인 패턴들은 사회적 상징도구가 되었고, 타탄은 이제 스코틀랜드의 일부가 되었다. 타탄은 개인이나 가족의 모임을 표시해 결속을 다지게 해서 우의 그리고 영토를 지키는 힘에 보탬이 되었다.

타탄은 하일랜드(Highland) 의복인 킬트(Kilt)와 플라이드(Plaid)에 필수요소가 되었다. 다른 유럽국가의 전통적인 체크 패턴은 서서히 사라졌지만, 스코틀랜드 타탄은 백파이프(Back Pipe)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유럽을 흥미했다. 타탄은 스코틀랜드의 지정학적 위치와 문화적인 조건 덕분에 발전했고 그 독창성은 주변국의 경제적,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 남았다.

이제 하일랜드 가문의 후손들은 세계 곳곳에 퍼

3) 학원대백과사전, 29권, 학원출판공사, 1993, p.271

4) OXFORD DICTIONARY, 1981

5) 김미연, "체크 패턴에 의한 직물디자인에 관한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p.4

6) 정승원, "수직기를 이용한 체크무늬 작품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3

7) 학원대백과사전, 28권, 학원출판공사, 1993, p.67

져 살기 때문에 옛날처럼 가문의 우애를 지킬 순 없지만 자신들의 동일성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는 남아있다. 그리하여 옛날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타탄이 오래된 것과 같은 의미로 주목받고 있다.⁸⁾

타탄이 스코틀랜드의 의복으로 사용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대 로마의 시인인 버질(Virgil BC 70~19)은 그의 저서에서 고대 대영 제국인 켈트인이 아름다운 즐무늬의 의복을 입고 있던 일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당시부터 타탄 체크 발생의 징조가 보인다. 한편, 1242년과 1249년의 스코틀랜드 교회의 포고, 1256년의 Aberdeen의 포고령에는 교회의 신도는 빨강과 녹색의 세로줄 모양의 의복을 착용하고 그 의복은 무릎보다 짧아서는 안된다고 지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타탄이 스코틀랜드 기록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3세기경 부터로 추정된다.

또 비슷한 시기에 교회의 성찬식에서는 성배에 두장의 베일을 덮고 안쪽의 베일은 순백의 선(Line), 바깥쪽은 격자 모양의 견을 사용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다.⁹⁾ 13세기 스코틀랜드에서는 타탄이 확실하게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15세기에서 16세기에 이르면 기록상에도 타탄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게 된다.

1474년 영국 대장경(大藏卿)의 회계부에 처음으로 타탄에 가까운 Tartar라는 언어가 등장하였으며 1538년 제임스 5세(James V)가 고지에 원정 갔을때의 기록에도 Tartan을 가르키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왕의 Tartan양말, 녹색의 타페타(Taffeta),¹⁰⁾ 안감이 달린 벨벳(Velvet)의 짧은 상의, 그 밑에 견사로 자수를 놓거나 리본장식이 있는 짧은 것을 착용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타탄이 존재하고 있었음이 확

증되고 있다. 이와같이 16세기말에서 17세기가 되면서 타탄의 존재는 스코틀랜드의 특수한 민족의 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독자적인 위치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 시대에는 각 지방을 나타내는 타탄으로서 지역 타탄(district tartan)이나 씨족의 표상으로서 씨족 타탄(clan tartan), 수렵용 타탄으로서 헌팅 타탄(hunting tartan), 사교용이나 무도회용으로 착용된 드레스 타탄(dress tartan)등도 기록에 등장하고 있다.

17세기에 확립을 보인 타탄이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원숙과 완성의 길을 걷게 되나, 그 후 타탄의 존재를 위협하는 역사적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소멸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

1745년 크로멩 전투에서 스코틀랜드를 이긴 잉글랜드 의회는 스코틀랜드 씨족의 부활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가장제도와 무기의 소유 그리고 씨족의 단결과 통합의 상징이었던 그들 고유의상인 타탄의 사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Prohibition Act라 불리는 Tartan Check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¹¹⁾

그 후 Tartan 금지령의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오랜기간의 집요하고 강력한 탄압 때문에 씨족이나 타탄의 직장(織匠)들은 사멸하거나 거주지를 떠나 원래 모습대로 재현하기는 어려웠다. 다행히 자가제(自家製)의 타탄을 보존한 사람, 취미로 수집한 사람들에 의해 차츰 민족의상 등에 타탄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이 있게 되어 부활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Tartan 제직에 이용된 실의 색, 수를 Setts¹²⁾ 하고 있는 측정봉(Measuring-Stick, Pattern-Stick)이 거의 분실되었기 때문에 옛모습 그대로의 타탄 재현은 불가능하게 되어 타탄 본래의 무늬가 그대로 후대에 전해진 것은 별로 많지 않았다고 본다.

8) Hugh Cheape, 앞의 책, p.7

9) Kaigai 기획실, "Clan Tartan of Scotland I", Kaigai Inc, 1982, p.2

10) Taffeta : 경사에 꼬임을 준 광택이 있는 평직의 명주, 일명 호박단(琥珀緞)이라함

11) Wolfgang Hagency, Tartan, Bclrcdrc CO, 1987, p. X

12) Sett : 다탄무늬의 한단위를 가르키며, tartan의 길이(크기)는 sett을 여러번 반복하여 만들어진다.

19세기에 들어서 스코틀랜드 고지(高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고지의 의상과 타탄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게 되었으며 특히,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은 1882년 조지 4세(George IV)가 옛 모양 그대로의 타탄을 재현시키려고 시도할 때 부터이다. 타탄을 부활하고 타탄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전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타탄의 성행은 1842년 빅토리아(Victoria) 여왕이 스코틀랜드를 방문 했을 때 고지 의상을 보유하고 있는 측장들을 정당하게 인정하는 풍습을 공인함에 따라 더욱 유행하게 되어 Tartan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부활하게 되었다.¹³⁾ 그 후 스코틀랜드인들의 일상 생활에 타탄을 계속해서 애용함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면서 금세기에 들어와서 타탄 체크는 단순한 스코틀랜드인만의 것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단계에까지 보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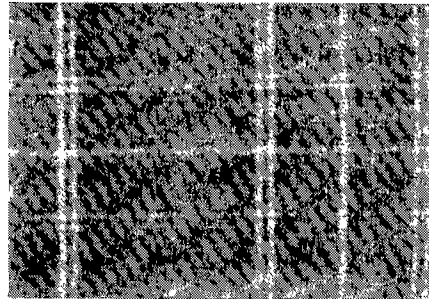
2. 타탄의 형태

타탄 체크는 그것을 착용하는 목적이나 용도, 신분,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가 있으며 각각의 명칭이 주어져 있다. 각기 독자적인 용도와 특성을 살펴보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 타탄(District Tartan)은 씨족 타탄의 전신으로 초기에는 여행자들이 착용하고 있는 타탄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구분 할 수 있었다. 어떤 지역에 거주하는 씨족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용된 씨족 타탄(Clan Tartan)은 씨족의 구성원 중에서 족장 및 그 직계가족을 제외한 사람이 착용한 타탄으로 씨족 타탄을 사용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느 씨족에 소속되어 있는 가를 나타낸다. 또한 씨족의 장(將)인 족장이 이용한 칩스 타탄(Chief's Tartan)은 족장 및 그 직계가족만 착용할 수 있었다. 왕족들만 착용할 수 있는 로얄 타탄(Roy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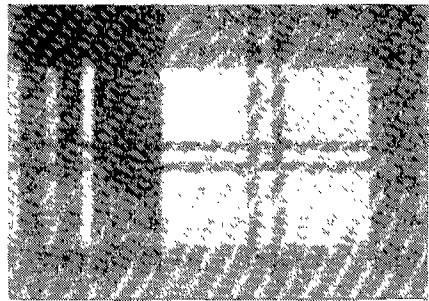
Tartan)은 Royal Stewart로도 알려져 있으며 왕가 외부의 어떤 상황하에서도 착용이 불가능했다. (그림 1)

스포츠나 활동시 특히, 수렵시 착용하였던 헌팅 타탄(Hunting Tartan)은 식물이나 황무지등과 유사한 색상으로 만들어져 눈에 띄지않게 했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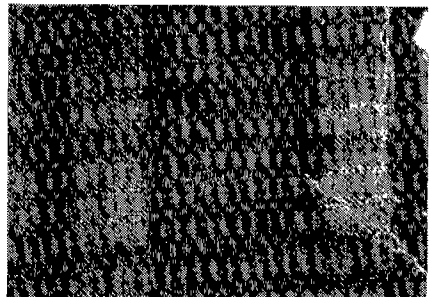
원래 씨족의 부인들이 착용한 드레스 타탄(Dress Tartan)은 씨족 타탄보다 밝은색과 무늬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자의 것보다도 우아하고 선명한 색채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무도회등 사교용으로 착용되었다. (그림 3)



(그림 1) Royal tar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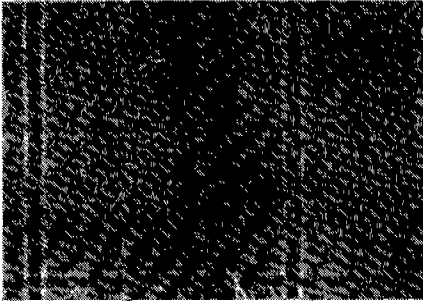
(그림 2) Hunting tartan



(그림 3) Dress tartan

13) 김영현, 앞의 논문, p.7

상복(喪服)의 용도로 착용한 모닝 타탄(Mourning Tartan)의 무늬는 무채색의 흰색과 검정색으로 제작되었다. (그림 4)



(그림 4) Mourning tartan

그 밖에도 군대의 제복으로 이용되고 있는 아미 타탄(Army Tartan), 족장의 가족들이 사용한 패밀리 타탄(Family Tartan) 등이 있다. 타탄중에서도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역시 씨족 타탄(Clan Tartan)으로 다른 타탄들은 그것이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타탄 체크 형태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ymmetrical Setts는 대칭 패턴으로 두 개의 추축(樞軸)이 있는데, 그 추축에서 시작되는 줄무늬(Stripe)들이 동·서·남·북의 네 방향으로 정확하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두 개의 추축은 각기 하나의 칼라로 된 사각형들에 의해서 사선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전체 Sett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고 추축에서 방향이 바뀌어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복되는 칼라의 연속이다. 그러므로 이 패턴의 기록은 1/2 Sett로 가능하며 Symmetrical Setts는 보통 5내지 7인치(13내지 18cm) 사이에서 주름을 잡을 수 있다.

둘째, Asymmetrical Setts는 비대칭 패턴으로 추축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 추축이 없다. 이 패턴은 직물의 너비를 가로지르면서 반복된다. 중심에서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중 직조기(Double-width looms) 사용이 불가피하다. 방향이 바뀌는 부분이 직물이 접히는 부분이며 킬트

(Kilt) 이외의 의복을 재단할 때는 재봉사가 칼라를 맞출수 있도록 마름질이 되어야 한다. 이 패턴은 비대칭 타탄이므로 마름질의 대칭 형태를 잘라낼 때 실수하기 쉽다. 전체 Sett를 칼라의 첫글자 알파벳순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직물의 앞면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트윌(Twill : 능직) 효과가 나타나는 쪽이 앞면으로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사선을 만들면서 나타난다. 생산된 직물에 매듭이 생긴 부분이 직물의 뒷면이다.

셋째, Equal Check는 균등한 패턴으로 단지 두 가지 칼라만 사용된 가장 단순한 타탄이다. Rob Roy로 알려진 맥그리거(MacGregor)타탄이 대표적인 것으로 검정과 빨강색으로 된 체크이다.

먼크리피(Moncreiffe)는 빨강과 초록색으로 된 Equal Check이다.¹⁴⁾

Ⅲ. 스코틀랜드(Scotland)복식의 특징

현재 이용되고 있는 타탄 체크는 남성복, 여성복 및 스포츠 웨어 등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원래 스코틀랜드의 특수한 민속 의상에 사용되었다. 민속 의상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씨족의 표상으로 중시되었던 스코틀랜드 복식은 로마가 세력을 잡고 군사력을 과시할 때 웬시 드레스(Fancy Dress : 무도회용·가장용)로 이용되어 그림엽서나 연극에서 코믹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스코틀랜드 복식의 초기 형태는 샤프란 셔츠(Saffran Shirt)로 3세기 경에 아일랜드로부터 스코틀랜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Scot족이 착용했다. 이것은 길이가 긴 린넨으로 만들어졌으며 주름을 많이 잡고 어깨에 패드를 대기도 했다. 보통 이것의 길이는 발목까지 였으나 착용자가 보다 활동적이기를 원한다면 끌어올려 허리에 벨트를 매기도 하였는데, 이것이 킬트(Kilt)의 시초라고 불

14) Richard Dewing, TARTANS, Quinter Publishing Limited, 1994, p.14

수 있다. 또한 사프란 셔츠는 벨트를 맨 플라이드(Plaid)로도 계승되었는데¹⁵⁾ 이 두가지 복식의 특징과 형태 그리고 Scot족에 의해서 어떻게 계승·발전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 PLAID

타탄을 지칭하는 게일어¹⁶⁾는 ‘브리칸(Breacan)’인데, 이 말은 특히 허리에 벨트를 묶고 어깨에 브로치를 꽂아 입는 플라이드를 뜻한다.

벨트를 맨 플라이드는 약 6야드(YD)의 길이와 1 1/2야드 폭의 장방형으로 가장자리가 바느질된 천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킬트처럼 무릎 정도의 길이로 허리에서 주름을 잡고 벨트를 매었으며 남은 부분은 칼쓰는 팔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한쪽 어깨위에 고정시켰다. 플라이드 속 가장 밑에는 셔츠가 입혀졌고 셔츠 위에는 짧은 코트나 웨이스트 코트를 입었다.¹⁷⁾ 착용방법은 허리부분에서 양주름을 접었으며 앞부분의 몸을 감치는데 충분한 여유를 갖도록 천중앙에 주름을 넣어 어깨에 걸치고 허리부분을 가죽벨트로 꼭 조여 입는다. 이때 앞부분의 아랫단은 무릎관절의 한 가운데까지 늘어뜨리고 뒷부분은 주름지게 해서 조이며 왼쪽어깨 부분에는 큰 브로치 또는 핀으로 장식하고 몸의 오른쪽으로 늘어진 아랫단은 벨트 밑으로 찢러 넣는다. 주름을 잡을 때 타탄의 무늬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¹⁸⁾

플라이드 착용시 아랫쪽 부분에는 같은 타탄 직물로 만든 짧은 호스(hose)나 스타킹을 신었다. 이것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직조된 여러 종류의 울(Wool)로 만든 타이트한 바지의 일종인 트리

우바스(Triubhas)로 발전되었으며 17세기에는 트루스(Trews)라고 하였다. 이것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말을 탈 때 입었으며 다른 바지와 모양이 달랐으므로 하일랜드인들은 그것으로 로우랜드인들과 구분을 하였다.¹⁹⁾



(그림 5) 18세기 하일랜드 복식 TARTAN, p.17

(그림 5)는 18세기 프랑스 화가가 그린 하일랜드인인데 타탄 플라이드와 호스를 다양하게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은 17세기 후반 하일랜드 지도자의 전



(그림 6) 17세기 후반 플라이드 의상을 입은 지도자 TARTAN, p.18

15) James D. Scarlett, *The Tartan of Scottish Clans*, Willian Collins San and Company Limited, 1975, p.14
 16) 게일어(Gaelic Language) : 인도·유럽어족인 켈트어파에 속하는 아일랜드어. 현재는 영어 때문에 세력이 약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어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
 17) James D. Scarlett, 앞의 책, p.15
 18) 김영현, 앞의 논문, p.14
 19) James D. Scarlett, 앞의 책, p.16

형적인 모습으로 플라이드 의상에 트루스를 입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은 승마할 때 입는 복장으로 플라이드를 어깨에 두르고 있다.

(그림 7)은 1749년 하일랜드 전통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그린존 캐번이 어깨에 벨트를 펴 수 있는 플라이드등 타탄 의복 일체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



(그림 7) 1749년 플라이드를 입고있는 그린존 캐번
TARTAN, p. 22

(그림 8)은 1720년대 플라이드와 트루스를 입고 있는 하일랜드인의 평상복 차림의 모습이다.

여자들도 플라이드를 입었는데, 윌리엄 브리튼 경이 묘사한 글을 보면 “많은 여자들이 플라이드를 입었다. 머리부터 뒤집어 써서 얼굴을 가렸으며,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는데, 자락을 팔 밑에 끼고 입었다.”²⁰⁾ (그림 9)



(그림 9) 여자의 플라이드
TARTAN, p.34

이런 넓은 술은 스코틀랜드 여인들의 전형적인 소품이 되었다.

2. KILT

격자 줄무늬의 스커트인 킬트는 스코틀랜드의 남자의상으로 벨트를 맨 플라이드와 함께 착용 되었는데, 이것이 스코틀랜드 복식의 초기 형태라고 저명한 역사가인 John Sinclair 경이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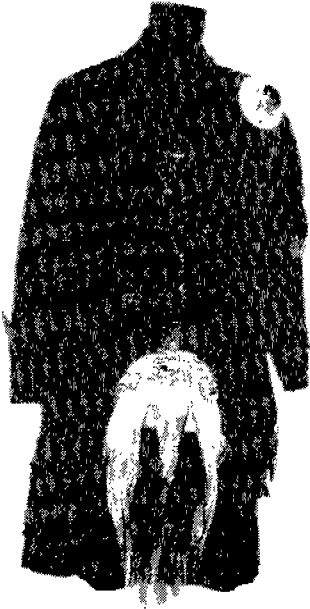
킬트는 돈과 같은 가치가 있었고 부유한 사람일 수록 몸에 맞는 킬트를 소유했다. 평상복은 타탄 또는 트weed(Tweed) 직물로 만들어지며 정장용(그림 10)은 평상복보다 한층 세밀한 타탄으로 만들어지며 만약 씨족 고유의 타탄을 갖고 있을 경우 씨족의 드레스 타탄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킬트는 스커트 밑단이 무릎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확한 형태이다. 왜냐하면 젖은



(그림 8) 1720년대 하일랜드인의 평상복
TARTAN, p.23

20) Hugh Cheape, 앞의 책, p.19



(그림 10) Tartan for evening wearing
TARTAN, p.67



(그림 11) 1785년 파이프 연주자인
닐 맥린 초상화
TARTAN, p.40



(그림 12) 1835년경
하일랜드인의 복장
TARTAN, p.52

킬트는 톱날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릎 뒷부분에 상처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²¹⁾

(그림 11)은 1785년 파이프 연주자인 닐 맥린의 초상화인데 킬트, 따로 떨어진 플라이드, 모피 주머니를 착용한 모습이 하일랜드 의복의 의례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그림 12)은 1835년경의 하일랜드의 복장으로 재킷, 킬트, 플라이드와 모피 주머니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림 13)는 1864년 케네스 맥레이가 그린 세 사람의 초상화인데, 뚜렷한 주름을 잡은 킬트를 입고 있는 하일랜드의 주요 씨족 출신의 빅토리아 여왕의 하인들의 모습이다.

킬트의 자켓은 일반 신사복보다 짧게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킬트의 주름이 시작되는 허리부분을 매끄럽게 보이기 위해서이다. 또한 소매단은 넓게 접어 입으며 마름모 모양의 단추는 앞, 소매, 좌우 주머니에 단다. (그림 14)



(그림 13) Kilt
TARTAN, p.59

그리고 이 자켓의 기본 스타일은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스포츠 자켓과 유사하고(그림 13 참고) 다른 하나는 커프스와 견장이 달린 아가일 패턴의 자켓이다. (그림 14 참고) 자켓의 소재는 트위드

21) James D. Scarlett, 앞의 책, p.17



(그림 14) 아가일 패턴의 자켓
TARTAN, p.55



(그림 15) 'Highland dress' Yves St.
Laurent TARTAN, p.71

가 선호되는데, 정교하고 어두운 색의 트위드는 스코틀랜드 남부에서 신사복으로 이용된다.

IV. 현대 패션에 응용된 스코틀랜드 복식

스코틀랜드인들에게 강한 역사적 그리고 국민적 의미를 준 타탄은 현재 영국의 대표적인 컨트리룩(Country Look)으로 유명하다. 타탄 체크의 색채구성은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패턴 분위기는 대단히 스포티(Sporty)하고 플레이풀(Playful)하다는 기분이 어느 무늬에서나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평상복이나 스포츠 웨어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남성복, 여성복 및 아동복, 인테리어 소품, 머플러 등의 악세사리에 이르기까지 이용되어지는 대표적인 패턴으로 거의 유행에 상관없이 지속적이며²²⁾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패션에서 타탄무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으며 요즘은 디자이너 브랜드 옷에서도 타탄 무늬를 찾을 수 있다.

다음은 현대 패션에 응용된 타탄과 스코틀랜드 복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그림 15)는 이브 생 로랑(Yves St. Laurent)이 만든 '하일랜드 정신'이 깃든 앙상블이다. 풍부한 상상에 의한 작품이지만 길트처럼 주름이 가득한 스커트의 밝고 대담한 타탄에 골드 브레이드르 트리밍한 블랙 벨벳에 밀리터리·튜닉으로 17세기 지도자같은 넓은 깃털이 달린 벨벳 보네트에 전통이 배어 있다.

가장 개성적인 현대 디자이너 작품에서도 옛 하일랜드 관습에 충실함이 보여지고 있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전통적인 타탄 체크 패턴을 이용한 것으로 (그림 16)은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타탄 체크를 색시하고 몸에 밀착되는 이브닝 드레스와 풍성한 실루엣의 플레어 스커트 그리고 모자에 이용했다. 클래식하고 모던한 분위기를 나타내면서 타탄 체크를 그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림 17)은 타탄 체크를 이용한 코트 디자인으로 발랄한 느낌을 주며 부츠, 모자, 가방 등의 소모품에도 타탄 체크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그림 18)은 체크 패턴이 포멀한 정장 자켓과 스커트에 이용된 리치한 분위기를 주는 작품으로

22) 김영현, 앞의 논문, p.IV



(그림 16) Fashion News, 94-95 A/ W, Toold oldham Collection, 95 F/ W DKNY



(그림 17) Collezioni bis, Donna



(그림 18) Collection, 94-95 A/ W, Givenchy



(그림 19) Collection, 94-95 A/ W Xuly BET

(그림 20) Collection, 94 S/ S Yuki Torii

체크 패턴의 클래식하고 베이직한 느낌이 투피스
의 심플한 디자인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작 품
에서 볼 수 있듯이 같은 색상의 체크 패턴이라 하
더라도 선의 굵기에 따라 화려하게(그림 좌측참
고) 또는 차분하게(그림 우측참고)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은 몸에 피트되는 원피스에 체크 패턴
이 이용되었다. 체크 패턴의 트레이디셔널한 이미
지가 신체의 곡선을 드러냄으로써 섹시함이 표현된
작품이다.

(그림 20)은 채도가 높고 밝은색의 조합으로 된 체크 패턴으로 캐주얼한 셔츠에 이용되어 발랄한 느낌을 주며, 수직선을 이용한 스트라이프 패턴의 바지와 조화를 이루어 더욱더 경쾌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V. 결 론

일반적으로 선염(先染)한 날실과 씨실로 직조하여 무늬를 만들어내는 체크문양은 전통성과 다양성 때문에 꾸준히 애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크는 급진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선의 변화, 색채감각, 세밀한 구성 등에 의해 변화되고 활용되었으며 복고주의를 표방하는 현대 패션 경향으로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각광을 받게 되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체크 문양의 대표적 양식인 타탄 체크와 스코틀랜드 복식의 특징을 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탄은 가장 보편적인 체크 패턴으로 원래 스코틀랜드 민속 의상으로 사용된 체크무늬의 모직물이다. 타탄 체크는 스코틀랜드 고원지방의 대표적인 명문의 씨족 특유의 무늬를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무늬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의 상징으로 전해 내려와 신분, 출신지, 목적, 용도에 따라 다양하며 현재는 180여종의 무늬가 전해지고 있다.

둘째, 스코틀랜드 복식은 민속 복식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씨족의 표상으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셋째, 현재 패션에 응용된 타탄을 타탄 체크와 체크 패턴을 이용한 작품들을 분석해 보았는데, 트레이디셔널한 이미지인 정장 뿐만 아니라 캐주얼복, 이브닝 웨어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체크 패턴은 클래식하고 심플한 디자인 뿐 아니라 현대 패션 경향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에까지 이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소로 패션 디자이너들

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요소일 것이다.

참고문헌

- Kaigai 기획실, Clan Tartan of Scotland I, Kaigai Inc, 1982
- Marge, Black, The Key to Wearing, Macmillan, 1980
- Evekyn E. Stout, Introduction to Textiles, New York : Willy Company. 1970
- Isabel B. Wingate, Textile Fabrics and Their Selection,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Regensteiner, Else, The Art of Wearing,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 1970
- Wolfgang Hageney, Tartan, Belvedere Co, 1981
- Hugh Cheape, Tartan, Trustees of The National Museums of Scotland, 1995
- James D. Scarlett, The Tartans of The Scottish Clans, William Collins Sons and Company Limited, 1975
- Richard Dewing, Tartans, Quinter Publishing Limited, 1994
- The Illustrated Dictionary of Fashion, Rasara Publishing Co, 1992
- Oxford Dictionary, 1981
- Encyclopedia Britannica, Vol. 21, 1969
- 학원 세계대백과 사전 28권, 29권, 1993
- 동아 세계대백과 사전
- 김미연, '체크 패턴에 의한 직물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미정, '수평, 수직선에 의한 조형 표현',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영현, 'TARTAN CHECK에 관한 연구', 이

화여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정승원, '수직기를 이용한 체크무늬 작품연구', 이화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ABSTRACT

A study on the Tartan and Scotland Costume

Tatan is a symbol of kinship and belonging in Scotland, and a badge of identity recognized all over the world.

Alongside the powerful historical and national resonance to Tartan for Scots, it has been borrowed repeatedly by fashion.

The pattern composition of Tartan check is formed as a typical cross stripes that vertical line and horizontal line meets rectangulary. And its color is much various and rich than other check pattern. So its magnificent spectacle that various all kinds of colors is dyed in cloth is second to name. Today, we are as likely to meet tartan in a couturier dress as in

a kilt or plaid.

Tartan is distinctive in colour, style and design. It conveys personality ceremony and drama. All these aspects of its character have contributed to tartan being one of the best-known and best-loved fabrics in the world.

In other parts of Europe traditional checked patterns declined and disappeared but in Scotland tartan survived strongly, just as the bagpipes, also European, flourished. Due to geographic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Scots were able to develop and enhance tartan, and its remarkable individuality ensured its survival in spite of adverse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s. Tartan has been adopted as the national dress of all Scots, Lowland and Highland, providing a powerful form of national, cultural and personal identity. Whether traditional or a recent creation, whether a symbol of nationality or a substitute for nationhood, tartan is no mean achievement.